

목은 이색의 詠花詩 연구

-매화시, 국화시, 연꽃시를 중심으로

김홍매(서울대)

1. 들어가는 말
2. 목은의 영화시
 - 1) 매화-높은 덕성과 아취의 상징
 - 2) 국화-현실과 귀거래의 갈등과 해소
 - 3) 연꽃-군자의 품격과 풍류의 실현
 - 4) 기타 꽃을 읊은 시
3. 목은 영화시의 심미적 특징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詠花詩는 詠物詩의 일종으로, 꽃을 대상으로 하여 지은 시를 말한다. 영화시의 연원은 『시경(詩經)』과 『초사(楚辭)』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시경』의 자연물을 묘사한 시들은 대부분 자연물을 간결하게 묘사하고 거기에 기대어 興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소(離騷)>의 경우, 蘭에 상징성을 부여하여 시인의 고상한 품성을 나타내는 사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창작수법은 후대의 영화시 창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 영화시는 태동기인 선진 양한시기를 거쳐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며 화초의 심미의식이 고조되고, 『초사』·『시경』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영물과 인품 간의 상징·비유의 연결 작용이 심화되면서 본격적인 문학 장르로 정착되고 발전하였다. 당조에 이르러 뛰어난 작가들이 회화성과 심미성을 강화하였으며, 화초의 특징을 자신의 처한 환경에 보다 긴밀하게 연결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송조에 이르러서는 꽃을 감상하는 풍조가 보편화되었고 화초에 관한 전문서적이 등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꽃을 인품에 비유

하는 풍조가 증시되고, 문학예술 사조가 변화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영화시는 더욱 크게 발전하였다.¹⁾ 이처럼 영화시의 발전양상을 살펴보면 시대적인 풍조와 시인의 개인적인 심미취향이 영화시의 발전을 좌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조의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은 고려 시기의 시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영화시를 창작한 사람이다. 목은은 70여 수에 달하는 영화시 작품을 남겼는데, 매화·국화·연꽃·배꽃·월계화·훼나무꽃·치자꽃·쪽꽃 등 15종에 달하는 꽃에 대해 읊고 있다. 꽃을 보고 그때그때 느끼는 바를 시로 표현한 경우도 많거니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꽃구경을 하고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지은 경우도 적지 않다. 꽃구경을 할 때면 으레 술 놀이와 시 창작이 동반되기 마련인데, 목은은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다음을 기약하곤 하였다.

목은이 창작한 영화시 작품들을 살펴보면 매화·국화·연꽃을 읊은 시가 가장 많다. 이는 당시 문인들이 이 세 가지 꽃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감상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매화·국화·연꽃은 역대의 문인들에 의해 무수히 시로 읊어졌고 목은의 시기에 들어서는 이미 그 상징적 의미가 고착화되다시피 하였다. 즉 이들 꽃을 감상하는 것은 옛 사람들의 덕성과 풍류를 생각하고 그를 닮아가려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계기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와 함께 목은이 꽃을 구경한 일은 뜻이 맞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활발하게 만들고 생활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로 작용하였던 것 같다.

본고에서는 목은의 영화시 작품 중 특히 매화시·국화시·연꽃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영화시 전통 및 목은 당시 꽃구경과 관련된 시대적 풍조의 맥락 속에서 이들 작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목은의 꽃 감상 및 시가 창작의 문화사적 의미와 목은 영화시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1) 김연희, 「송대 영화시 연구-사군자를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p.30.

2. 목은의 영화시

1) 매화-높은 덕성과 아취의 상징

매화가 시인들의 작품 속에 등장한 것은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그렇지만 매화시가 하나의 큰 풍조를 이루고 대량으로 창작된 것은 중국의 송나라 때였다. 송대 이전에도 매화를 읊은 작품은 아주 많았지만, 그 작품들의 대다수는 봄을 맞이하고 시간의 흐름을 아쉬워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등의 閨怨類의 작품들이다.²⁾ 그런데 송대에 이르러 매화는 속세를 벗어난 은자의 형상으로 부각되어 아취를 가진 꽃의 상징이 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북송 중기 이후 매화는 성리학의 부흥으로 인해 절개와 덕성을 갖춘 사물로 인식되었으며 유가에서의 청렴하고 강직한 이상적 덕성의 상징이 되었다. 따라서 매화를 노래하는 행위는 곧 매화가 상징하는 인격에 대한 추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목은은 <꽃나무를 대하여 읊다(對花木發詠)>³⁾에서 매화를 송매(宋梅)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매화가 송대에 누린 명예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은이 매화시에서 자주 거론하고 있는 인물들로는 북송의 유명한 은자였던 임포(林逋, 967~1028)와 당현종 시기의 명재상 송경(宋璟, 663~738)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매화를 사랑하여 유명한 작품을 남겼다. 임포를 은자의 아취를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송경은 가히 유가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덕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임포는 평생 혼인을 하지 않았고 40세 이후에는 항주 서호의 고산(孤山)에 은거하면서 20년 동안 도시에 발길을 들여놓지 않고 매화를 심고 학을 기르며 살았다고 한다. 임포의 작품 <동산의 작은 매화(山園小梅)>⁴⁾는 매화의 특징을 잘 묘사하면서도 속된 생활에 물들지 않고 한적하고 그윽한

2) 李凌, <清得合讓梅爲最, 陽豔叢中許牡丹-唐詠牡丹詩與宋梅詩的比較>, 『鹽城工學院學報』 2004年 第三期, p.44.

3) 李穡, <對花木發詠>, 『牧隱詩藁』 卷之二十一.

4) 林逋, <山園小梅>, “衆芳搖落獨喧妍, 占盡風情向小園. 疏影橫斜水清淺, 暗香浮動月黃昏. 霜禽欲下先偷眼, 粉蝶如知合斷魂. 幸有微吟可相狎, 不須檀板共金尊.”

정취를 즐기는 정신적 세계를 잘 부각시키고 있다. 목은은 매화의 특징을 묘사할 때 임포의 시어를 즐겨 사용했는데, 다음의 시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 | |
|---------|--------------------------------------|
| 小溪清淺是江南 | 맑고 얇은 시내 여기가 강남인데 |
| 月上黃昏欲往參 | 달 뜬 황혼 무렵에 가서 구경하고파라. |
| 老牧病餘多伎倆 | 늙은 목은은 아픈 뒤에 기량이 많아져서 |
| 暗香疏影入清談 | 은은한 향 성긴 그림자 청담에 들어오네. ⁵⁾ |

맑고 얇은 시내(清淺), 은은한 향기(暗香), 달 뜬 황혼(月黃昏)과 성긴 그림자(疏影)는 <동산의 작은 매화(山園小梅)>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3, 4 구에 나오는 시어들이다. 이러한 시어들은 목은의 여러 매화시 속에 녹아들어 매화의 형상과 운치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⁶⁾ 이 시구를 읽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임포를 생각하게 된다. 즉 임포의 은거생활에 대한 상상을 통해 목은이 표현하고자 하는 우아한 정취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목은은 매화시를 지을 때 늘 임포의 은거생활과 한적한 정취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듯하다. “시인들이 매화시는 꼭이나 많이 짓지만, 서호를 화답할 자 그 몇이나 있을런가.(詩家摹寫應車載, 和得西湖有幾人)”⁷⁾라는 시구와 “나도 시 지어 서호를 압도하려 하니, 종이 가득 꿈틀대는 자획이 짙고 열고 하누나.(題詩欲壓西湖倒, 滿紙蛟蛇墨淡濃)”⁸⁾ 등의 시구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시인들이 아무리 매화시를 지어봤자 임포를 초월할 수 있을 자가 있을까?’라고 하며 시인들의 매화시 창작을 부정하면서도, 자신은 시를 지어 임포를 압도하려 한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詩才에 대한 자부심을 은연중에

5) 李穡, <梅花三首>, 『牧隱詩藁』 卷之六. 본고에서 인용한 한시의 번역문은 여운필, 성범중, 최재남 역, <역주 목은시고>; 임정기 역, <목은고>; 이종복 역, <목은한시선>을 참조하였다.

6) “氷雪前頭錦作堆, 暗香濃艷巧相陪.”, <正月初二日詣曲城府中, 見梅花躑躅一時盛開. 退而不能忘, 因成三首>, 『牧隱詩藁』 卷之十三; “有脚春風曲城府, 暗香疏影滿金杯.”, <曲城府梅花必開矣. 未能進謁. 自責>, 『牧隱詩藁』 卷之二十一.

7) 李穡, <詠梅花三首>, 『牧隱詩藁』 卷之六.

8) 李穡, <梅花二首>, 『牧隱詩藁』 卷之八.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임포는 혼자서 매화를 벗으로 노닐었던데 비해, 목은은 매화 구경하러 가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아취를 즐겼다. 위 시의 ‘매화의 향과 그림자가 청담에 들어온다’는 것은 매화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세속을 벗어난 그윽한 정취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의 매화 감상이 하나의 풍조를 이루고 있었음을 목은의 다른 시들에서도 알 수 있다. 목은이 늘 찾아갔던 곡성부(曲城府)의 염제신(廉悌臣, 1304~1382)이 매화를 많이 심었을 뿐만 아니라,⁹⁾ 목은 자신도 분매를 재배했고,¹⁰⁾ 목은과 늘 어울리던 다른 사람들 역시 분매를 심어 매화를 읊은 시와 분매를 서로 주고받기도 했다는 기록¹¹⁾이 남아있다. 매화는 문인들에 의해 재배하고, 빌리고, 선물하고, 감상하고, 시를 짓는 등의 행위를 통해 당시 문인들이 아취를 즐기는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문인들 간의 창작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유희제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 | |
|---------|---------------------------------------|
| 耆英會上綺羅堆 | 기영회 자리엔 화려한 비단이 쌓였건만 |
| 後進無由得暫陪 | 후진은 잠시도 모실 기회를 못 얻었다가 |
| 共羨黃花耐搖落 | 요락을 이겨낸 국화를 함께 감상하노라니 |
| 自憐青蕊晚移栽 | 늦게 옮겨 심은 푸른 꽃술이 가련하구나. ¹²⁾ |

| | |
|---------|--|
| 梅花照眼十分清 | 눈에 비친 매화가 십분 맑고 고상하여 |
| 欲把新詩上曲城 | 새 시 가지고 곡성 댁에 올라가려 하는데 |
| 改罷又爲心謾苦 | 버리고 또 만들다 보면 마음만 고통스럽고 |
| 訛來更正字難平 | 잘못된 걸 바로잡으면 글자가 고르질 않네. ¹³⁾ |

9) “幾人能得一時看, 三達尊翁獨竝栽.”, <正月初二日詣曲城府中, 見梅花躑躅一時盛開. 退而不能忘, 因成三首.>, 『牧隱詩藁』 卷之十三.
 10) <前數日謁曲城府, 有蘭無梅. 予所得盆梅盛開, 不敢相邀. 特命種學進呈. 因賦三絕. 春分日也.>, 『牧隱詩藁』 卷之二十八.
 11) <花園林都領以梅花來曰朴令公所送也. 踴躍喜甚, 對坐半日. 徐吟一篇.>, 『牧隱詩藁』 卷之二十八.
 12) <正月初二日詣曲城府中, 見梅花躑躅一時盛開. 退而不能忘, 因成三首.>, 『牧隱詩藁』 卷之十三.
 13) <卽事>, 『牧隱詩藁』 卷之十三.

목은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분매가 꽃이 피자 시를 지어 분매와 함께 곡성부에 보내었고, 매화가 피어난 것을 보고 곡성부에 새 시를 지어 가지고 가려고 고심하였는데 시가 잘 되지 않아 고민하기도 한다. 곡성부의 주인인 염제신은 꽃을 좋아하여 여러 가지를 아울러 심었던 모양이고, 곡성부에서는 늘 꽃을 감상하는 주연을 베풀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꽃을 감상하고 시를 지었던 것 같다. 꽃을 감상하는 자리는 단순한 놀이의 장소가 아니라, 덕망이 높고 고상한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장소가 문인들의 문장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었으리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목은은 곡성부의 매화를 읊은 시에서 늘 염제신을 송경에 비유하고 있다. 송경은 일찍이 廣平郡公으로 봉해졌기에 宋廣平이라고도 불렀는데 그의 백성 사랑하는 덕을 아름답게 여겨 조야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일러 ‘다리 달린 봄(有脚陽春)’이라 불렀다 한다. 송경이 일찍이 <매화부(梅花賦)>를 지었는데, 당나라 시인 피일휴(皮日休)가 “내가 일찍이 재상 송광평의 바르고 강직한 자질을 사모해왔다. 그의 철석같은 심장으로서는 아마도 완곡하고 애교 넘치는 말을 하지 못할 줄 알았었는데, 그의 매화부를 보니, 통창하고도 풍부하고 고와서 남조의 서유체를 얻었다.¹⁴⁾” 라고 했다고 한다. 송경의 매화부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당시와 후세에 모두 아주 유명했던 모양이다. 그와 같이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정직한 관리가 매화를 사랑하여 그토록 아름다운 매화부를 지었다는 것은, 유가의 이상적인 인격을 매화에 투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2) 국화-현실과 귀거래의 갈등과 해소

국화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禮記·月令>>에 나오는 “음력 9월에… 국화는 노란 꽃을 피운다.”¹⁵⁾라고 전한다. 사람들이 국화에 대해 가장 먼저

14) 皮日休, <桃花賦序>, “宋廣平爲相, 貞姿勁直, 剛態毅狀. 疑其鐵腸與石心, 不解吐婉媚辭. 然觀其文有<梅花賦>, 清便富麗, 得南朝徐庾體, 殊不類其人.”

15) “季秋之月…鞠(菊)有黃華(花).”

인식을 하게 된 것은 국화의 약용가치 때문이었다. 국화는 설사를 멈추고 피를 멈추게 하며 종기와 독을 치료하고 나병 등의 병을 치료하며 사람을 장수하게 한다고 한다. 국화가 문학작품에 처음 등장한 것은 굴원(屈原, BC 343~289)의 <離騷>에서이다. “아침에는 목란에서 떨어지는 이슬을 마시고, 저녁에는 국화의 떨어진 꽃을 먹는다.”¹⁶⁾라는 시구에서 국화는 깨끗하게 살겠다는 지조를 상징하는 사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국화가 은자의 상징으로 정착된 것은 동진(東晉)의 도연명(陶淵明, 365~427)에 의해서이다. 도연명의 “사람들 모인 곳에 집을 지었으나, 수레소리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나. 그대에게 묻노니 어찌하면 그러할 수 있는가? 마음이 떨어지면 바깥세상도 스스로 멀어진다네.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꺾어드니, 남산이 아련히 눈에 들어오네. 산기운은 저녁놀에 아름다운데, 날아가는 새는 함께 돌아가는구나. 이 속에 참된 뜻이 있으니, 설명하려 하나 이미 말을 잊었네.”¹⁷⁾라는 시구와 여타 시에서 국화는 부귀와 권세에 아부하지 않고 자신의 지조를 굳게 지키는 은자의 형상으로 나타나 있다.

중국 청대의 陳夢雷(1650~1741)·蔣廷錫(1669~1732) 등이 편찬한 《古今圖書集成》에는 도합 208수의 국화시가 실려 있다. 그 중에 6조 시기의 것이 6수, 당조 63수, 송조 64수, 금원 18수, 명청 시기의 것이 57수이다. 국화를 읊은 賦는 도합 30편인데, 그 중에 6조 13편, 당송 8편, 원명청 시기의 것이 9편이 있다. 이외에도 국화를 읊은 詞 15수가 들어있다.¹⁸⁾ 당나라시기에 도연명은 부동한 평가를 받았다. 이는 당시 문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간여하는 것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도연명처럼 벼슬을 버리고 전원으로 귀의한 사람이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송조에 이르러 도연명은 소동파에 의해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되었으며 부귀영화를 탐내지 않고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정신을 지닌 인물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조는 국화문학의 최대 전성기로서, 이 시기 국화시의 발전은 도연명의 위상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16) 屈原, <離騷>. “朝飲木蘭之露兮, 夕餐菊花之落英”.
 17) 陶淵明, <飲酒>, “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問君何能爾, 心遠地自偏. 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 山氣日夕佳, 飛鳥相與還. 此中有真意, 欲辨已忘言.”
 18) 陳小芒, 蔘文華, <菊詩與菊文化>, 贛南師範學院學報, 2003年 第5期, p.41.

목은의 시에 나타나는 국화의 형상은 늦가을 서리를 이겨내면서 피어나는 강한 성격의 사물인가 하면, 그 약용가치에 근거해 사람을 장수하게 하는 사물로도 인식된다. 또한 도연명의 귀거래 행적을 연상시키면서 은일지향과 고아한 정취를 상징하는 사물로도 인식되었다.

목은은 젊은 시절부터 전원애에 몰입해 은거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심적으로 깊은 갈등을 느꼈다.¹⁹⁾ “고금의 영웅들은 마치 날아가는 새처럼, 반드시 지쳐야만 돌아갈 줄 알지 않는다고(今古英雄如過鳥, 不須待倦始知還)”²⁰⁾라는 시구와 “언제나 도연명을 본받아서, 돌아가 명리 쫓는 세상 사절할꼬(何當師淵明, 歸去謝馳逐)”²¹⁾라는 시구는 전원애로의 귀거래를 희구하는 목은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시들은 귀거래애로의 지향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목은의 심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人情那似物無情 인정이 어찌하여 사물처럼 무정한가?
 觸境年來漸不平 근래에 부딪치는 일로 점점 평온하지 못하네.
 偶向東籬羞滿面 우연히 동쪽 울타리 향하여 부끄러움이 얼굴에 가득함은
 眞黃花對僞淵明 진짜 국화를 가짜 연명(淵明)이 마주한 때문이라네.²²⁾

飧玉藍田雖有法 남전의 옥가루 먹는 법은 본디 있으나
 掛帆滄海豈無時 창해에 돛 거는 때인들 어찌 없으리오.
 菊花露冷金錢濕 찬 이슬 맞은 국화는 마치 젖은 돈 같고
 松樹風微翠蓋欹 바람 받은 소나무는 푸른 일산이 기운듯하네.
 強筆偶吟吟自若 억지로 읊조리니 읊조림 절로 괴로워라.
 古人出處欲從誰 출처를 고인 가운데 누구를 따라야 할꼬.²³⁾

19) 여운필, 『이색의 시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3. 2. p.148.

20) 李穡, <次韻題完山記室華同年詩卷三首. 予訪華君至完山, 同年尹典籤如京, 偶相值, 留數日. 完山, 百濟王甄萱故都也.>, 『牧隱詩藁』 卷之三.

21) 李穡, <題南大藩司尹菊詩卷末>, 『牧隱詩藁』 卷之四.

22) 李穡, <對菊有感>, 『牧隱詩藁』 卷之十九.

23) 李穡, <卽事>, 『牧隱詩藁』 卷之四.

위의 시는 목은이 52세 때 지은 것이다. 전원에 귀의하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뿌리치고 은거생활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목은 역시 평생 은거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결연히 전원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에 “거짓 연명”인 자신은 국화를 대하고 부끄러움이 얼굴에 가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 이 시 외에도 국화에 대한 시에서 출처에 대한 고민을 자주 드러내고 있는 바, 이러한 고민은 목은이 국화를 마주할 때마다 여러 번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목은이 전원으로의 귀의와 속세에서의 생활 사이에서 마냥 갈등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목은은 현실적으로 귀거래를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에 그는 전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뜻을 실행하기보다는 은자와 같은 한적한 취미를 유지하고 세속을 벗어난 정취를 즐기는 것으로 현실참여와 隱逸 취향 간의 모순을 극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시는 바로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 | |
|-------|------------------------------------|
| 頗怪周子言 | 주렴계의 말을 꺾이나 의심스럽게 여기나니 |
| 陶後鮮愛菊 | 도연명 뒤에는 국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네. |
| 同時見古人 | 동시에 옛사람을 보노니 |
| 往躡不須逐 | 지나간 자취는 쫓을 필요가 없구나. ²⁴⁾ |

주렴계(1017~1073)는 <애련설(愛蓮說)>에서 “국화는 꽃 중의 은자이다 … 도연명 뒤로는 국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²⁵⁾라고 하였다. 그러나 목은은 주렴계의 이 말에 의심을 표하면서 자신은 국화의 형상 속에서 옛 사람을 본다고 하였다. 그는 국화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명하면서, 도연명과 한 시대에 살지 않아도 도연명과 교감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이 비록 귀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도연명이 귀거래를 함으로써 이룩한 인격의 완성을 현실 속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

24) 李穡, <題南大藩司尹菊詩卷末>, 『牧隱詩藁』 卷之四.
 25) 周敦頤, 『愛蓮說』. “予謂菊, 花之隱逸者也. 牡丹, 花之富貴者也. 蓮, 花之君子者也. 噫! 菊之愛, 陶後鮮有聞.”

의 두 시는 목은의 이러한 인식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 | |
|-------|-----------------------------------|
| 落帽自風流 | 모자 떨어진 건 절로 풍류였지만 |
| 誰會悠然趣 | 유연(悠然)한 정취는 그 누가 알런고? |
| 淵明千載人 | 도연명은 천 년 전 사람이라 |
| 欲訪恐迷路 | 찾아가려 하나 길 잃을까 두렵네. ²⁶⁾ |

| | |
|---------|--|
| 梅花自早菊花遲 | 매화는 절로 이르고 국화는 절로 더디되 |
| 一種清香各得時 | 일종의 맑은 향만은 각각 때를 얻는다오. |
| 宇宙有君天所命 | 우주 안에 그대가 있음은 하늘이 명한 바이니 |
| 行藏且莫苦尋思 | 행장 가지고 행여 너무 깊이 생각 말게나. ²⁷⁾ |

도연명처럼 한적한 취미를 즐기는 것은 현실 생활 속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도연명의 길은 현실과는 단절되어 있는 길로, 길을 잃어버릴까 두려울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시에서 목은은 맑은 향기는 각자 시기를 얻는 법이니, 굳이 거취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다고 한다. 바로 이점이 목은이 현실과 단절된 길, 즉 은거를 체념하게 되는 이유이자, 목은 스스로의 현실 상황에 대한 좋은 변명 내지 합리화의 근거가 된다. 이로부터 사실상 전원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과 귀거래로의 회구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는 동시에, 그 고뇌 역시 어느 정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만 결국은 풀리게 된다. 목은의 시에서 국화가 풍류의 상징으로 자주 나타나는 현상도 이런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3) 연꽃-군자의 품격과 풍류의 실현

이백은 연꽃을 “맑은 물에서 부용이 올라오니, 자연스러운 자태 꾸밈이 없네.”²⁸⁾라고 노래하였고, 주렴계도 연꽃에 대해 “흙탕물에서 나왔으나 더

26) 李穡, <種菊三首>, 『牧隱詩藁』卷之五.

27) 李穡, <次金同年前後所寄詩韻>, 『牧隱詩藁』卷之五.

28) 李白, <經亂離後天恩流夜郎憶舊書懷贈江夏韋太守良宰>.

러운 것에 물들지 않았으며, 속이 비고 즐기는 곧다”고 찬미하였다.²⁹⁾ 연꽃 역시 매화나 국화와 마찬가지로 선명하고 독특한 개성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꽃이다. 목은은 연꽃 구경을 하거나 연꽃시를 지을 때 이점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
|---------|--------------------------------------|
| 我處污泥亦不染 | 나는 더러운 진흙에서 살지만 물들지 않으니 |
| 豈獨中通仍外直 | 어찌 속이 통하고 겉이 곧을 뿐이리오? |
| 吾家苦心天所賦 | 우리네 청고한 맘은 타고난 바이거니와 |
| 鄙哉橄欖多反側 | 더러울사 감람은 반복무상 그지없어라. |
| 先生霽月光風如 | 선생은 맑은 달 온화한 바람 같아서 |
| 愛我始自濂溪書 | 날 사랑함이 염계의 글에서 비롯했는데 |
| 雖然久病精力衰 | 비록 오랜 질병으로 정력은 쇠했지만 |
| 有句卓犖還紆餘 | 시문은 탁월하고 또한 여유가 작작했네. ³⁰⁾ |

위의 시는 연꽃을 대신하여 짓는다고 하면서 연꽃이 스스로 서술하는 식으로 지은 시이다. 목은은 주렴계가 <애련설>에서 말한 진흙에서 살지만 물들지 않고, 속이 비고 즐기는 곧은 연꽃의 특점을 이야기하면서, 연꽃을 사랑하게 된 것은 주렴계의 글을 읽게 되면서부터라고 밝히고 있다. 연꽃은 목은에게 있어서 군자의 형상을 상징하는 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 | |
|---------|---------------------------------------|
| 君子於吾兩眼青 | 군자만 보면 내 눈이 반갑게 변하나니 |
| 淡交無暹爾無庭 |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담박한 우정 때문이라. |
| 花中似者唯蓮耳 | 꽃 중에서 비슷한 것은 오직 연꽃이 있을 따름 |
| 便欲相尋柳下亭 | 금세라도 유향의 정자를 찾아가고 싶구나. ³¹⁾ |

29) 周敦頤, <愛蓮說>, “予獨愛蓮之出淤泥而不染, 濯清漣而不妖, 中通外直, 不蔓不枝, 香遠益清, 亭亭靜植, 可遠觀而不可褻玩焉.”
 30) 李穡, <賞蓮坐久. 兒子輩取米城中設食. 午後雨映東西山而不至坐上, 甚可樂也. 僮僕猶懼其或至也. 邀入寺中, 飲啖夜歸. 代蓮花語作.>, 『牧隱詩藁』 卷之十八.
 31) 李穡, <韓公見和一首, 末句云“却憶年前此時節, 蓮花處處賞亭亭”. 讀之興動. 又吟三首錄呈.>, 『牧隱詩藁』 卷之三十.

이 시를 통해, 연꽃 감상은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일인 동시에 옛 군자들을 떠올리는, 아취를 자랑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연꽃 감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당시의 상련(賞蓮) 풍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목은 당시의 상련 풍조는 「동국사영(東國四詠)」의 하나로 꼽힌 곽예(郭預, 1232-1286)의 고사에 큰 영향을 받았다.

漏雲殘照雨絲絲 “구름 새어나온 석양 아래 비가 실실이 내리네.”라는
 膾炙硯山四句詩 예산(倪山)의 시 구절이 회자(膾炙)되네.
 更憶風流玉堂老 옥당의 풍류 노인을 더욱 그리게 되니
 紅粧白髮兩相宜 붉은 단장과 흰 머리카락은 둘이 서로 어울리네.³²⁾

“구름 새어나온 석양 아래 비가 실실이 내리네”라는 시구는 최해(崔澐, 1287~1340)가 곽예(郭預, 1232-1286)의 <상련(賞蓮)> 시에 차운한 것이다. 곽예는 고려의 문신으로 좌승지(左承旨)·국자감 대사성(國子監大司成)·문한학사(文翰學士)를 지냈다. 그는 한림 시절 매년 비가 올 때마다 반드시 맨발로 우산을 들고, 홀로 용화원 승교사의 못가에 와서 연꽃을 구경하였다고 한다. 곽예는 <상련(賞蓮)>에서 “연꽃을 구경하러 세 번 삼지에 오니, 푸른 일산 붉은 단장이 옛날과 같네. 다만 꽃을 보는 옥당의 손님이 있어, 풍정은 아직 줄지 않았는데 살쩍은 실과 같네”³³⁾라고 하였다. 최해는 이 시에 차운하여 <밀직 곽예의 상련시에 추가로 차운하다(追次郭密直預賞蓮詩韻)>이라는 시를 지었다.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은 “구름 새어나온 석양 아래 비가 실실이 내리네”라는 것이다. 곽예의 일화는 당시와 후세 사람들에 의해 성대한 풍류로 인식되었다. 목은이 살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인식은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문인들의 연꽃 놀이는 성대한 모임으로 발전되어 갔다.

32) 李穡, <閏五月初九日獨坐. 至日斜有微雨, 日光雨點相雜. 因記崔拙翁和郭密直賞蓮詩“漏雲殘照雨絲絲”, 心語口曰, 宋詩有“五月臨平山下路, 藕花無數滿汀洲”之句. 五月, 政荷花開時也. 而微雨又如此, 拙詩情興可想. 予以二毛承乏領史翰, 郭公玉堂老之語先得僕之風情鬢絲也. 吟成一篇, 爲他日池之會張本>, 『牧隱詩藁』 卷之十六.

33) 郭預, “賞蓮三度到三池, 翠蓋紅粧似舊時, 唯有看花玉堂客, 風情未減鬢如絲.”, 『東文選』 卷20 권.

| | |
|---------|---|
| 日移疏影葡萄蔓 | 해는 포도 넝쿨에 성긴 그림자 옮겨 가고 |
| 風送清香菡萏花 | 바람은 연꽃에서 맑은 향기 보내오네. |
| 學飲象筒傾綠酒 | 상통음을 배워 좋은 술 기울이고 |
| 寄懷台嶺映丹霞 | 붉은 노을 비치던 태령에 내 생각도 부쳤네. ³⁴⁾ |

이 시는 연꽃구경을 하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맑은 향기 풍겨오는 연못가에서 연잎을 따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그려진다. “상통음”(象筒飲)은 비너로 연잎을 찢어서 줄기의 구멍을 통하게 하고 줄기를 코끼리 코 같이 휘게 한 뒤 술을 따라 마셨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위(魏)나라 정시(正始) 연간에 정각(鄭愨)이 삼복 무렵이면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군림(使君林)에서 피서를 즐기면서 큰 연잎을 연격(蓮格) 위에 올려놓고 술 석 되를 담아 이런 방법으로 마시면서 연잎을 ‘벽통배’(碧筒盃)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두 시는 연꽃놀이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한 청아한 모임이자, 시를 읊고 술을 마시는 풍류를 즐긴 모임이었음을 알려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연꽃의 아름다움과 향기에 취해서 술을 마시면서 연꽃을 즐겼던 옛 군자들을 회고하고 동시대 뜻이 맞는 사람들과 교유하며, 이상적인 인격과 삶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그 외 꽃을 읊은 시

매화와 국화, 연꽃 등 상징적 이미지가 강한 꽃 외에도 목은은 많은 꽃들을 시로 읊었다. 배꽃, 월계화, 왜나무꽃, 치자꽃, 쪽꽃, 맨드라미, 앵두꽃, 난, 척촉화, 서향화(瑞香花), 계두화(雞頭花) 등의 꽃들을 읊은 시가 있는가 하면 이름 없는 들꽃을 읊은 시도 있다. 이 중에는 배꽃을 읊은 시가 상대적으로 많다. 목은이 배꽃을 읊은 시는 배꽃이 달빛과 함께 어울린 고요하

34) 李穡, “仲夏以來苦欲賞蓮. 一日遣長鬚往候. 則雲錦池花亡久矣. 獨廣濟池盛開. 於是命鶴而往, 緣堤信馬, 偶得任中郎林亭邀天台懶殘子同賞. 公設食作碧筒飲, 向晚解携, 因過南溪院. 既歸, 則日已晚矣. 吟成二首.” 『牧隱詩藁』 卷之十八.

고 맑은 분위기 속에서 시인의 인생사에 대한 사색을 읊은 작품이 대부분이다.

浮生安得具四美 뜬 인생 어떻게 하면 네 가지를 다 갖출 수 있을까
賞心樂事多相違 마음에 맞는 즐거운 일은 잘 생기지를 않는구나.
最憐病骨殺風景 병든 몸이 풍경을 해치는 것이 제일 가여워
頽然就枕垂重幃 힘없이 베개에 기대어 겹 휘장 드리우네.³⁵⁾

위 시에는 목은이 매화나 국화, 연꽃을 대할 때처럼 옛 군자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다잡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병든 몸에 사색에 짓눌려 힘없이 휘장을 닫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물론 시를 지은 당시 상황에 기인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시에서는 목은이 더 이상 자신을 속박하고 다잡는 이념이나 신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평범한 일상에 돌아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다음의 시 역시 목은의 평범한 일상 모습이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西隣槐樹着新花 서쪽 집 해나무 새로 꽃 피었는데
清曉無風帶露華 맑은 아침 바람 없어 이슬 빛 떠있네.
折得數枝分陋巷 몇 가지 꺾어 누추한 골목에 나누어 주니
色侵黃卷影橫斜 그 빛깔 책을 덮어 그림자 기울어졌네.³⁶⁾

평범한 시골 생활에서의 한가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목은은 상징적 의미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꽃을 대할 때, 비교적 일상적인 마음으로 꽃을 대할 것 같다. 꽃에 대한 묘사 역시 이름 없는 꽃이나 강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꽃을 마주할 경우 더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목은이 전대의 시인이나 작가들의 작품을 의식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35) 李穡, <梨花月>, 『牧隱詩藁』 卷之二十一.

36) 李穡, <槐花>, 『牧隱詩藁』 卷之二十四.

3. 목은 영화시의 심미적 특징

목은의 詠花詩 작품들은 단순한 꽃 감상이 아니라 대부분 일종의 인격수양에 대한 지향이나 풍류를 염두에 두고 쓰인 작품들이다. 목은은 꽃의 구체적인 형상의 묘사에 치중하기 보다는 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에 신경을 썼다. 이 때문에 목은의 詠花詩에서 꽃의 형상에 대한 묘사로 일관되어 있는 작품은 보기 드물다. 목은은 꽃을 형용함에 있어서 꽃의 형상에 대한 묘사에 치중하기보다는 꽃의 기질이나 풍격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꽃의 내적 기질과 상통하는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는데 더 힘을 쏟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목은의 영화시는 결국 꽃 자체에 대한 완상보다는 꽃이 상징하고 있는 이상적인 인격에 대한 추구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성리학자로서의 그의 정신적 추구하고 어울릴 뿐만 아니라 유가의 심미관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에 마음을 빼앗겨 지나치게 정신을 잃는 완물상지(玩物喪志)를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영물시를 지을 때도 지나치게 사물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목은은 많은 분량의 시를 지으면서 지나친 시 창작이 유학자의 본분에 어긋날까 염려했는데, 이러한 점이 그가 영화시를 지을 때 꽃의 형태에 대한 묘사보다 꽃의 내재적 기질과 상징적 의미에 중점을 둔 경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목은은 새로운 경향의 영화시를 창작하기보다는 전대의 동아시아 영화시의 전통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그 전통의 연장선 위에서 시를 창작하였다. 목은의 영화시 중에는 유명한 典故나 시들을 염두에 두고 쓰인 작품이 많다. 목은은 한 두 개의 시어를 사용하여 이런 전고나 시들을 상기시키면서 꽃이 상징하는 이상적인 인격이나 모임에 대한 추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목은은 제한된 언어로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풍부한 상상과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한 수의 시 속에 여러 명의 인물의 형상을 겹쳐놓는 복합적인 미학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4. 나오는 말

이상으로 목은의 詠花詩 작품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목은의 詠花詩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선명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은 매화시와 국화시, 연꽃시 작품들이다. 이 세 가지 꽃의 공통된 점은 모두 유가에서 인정하는 강직한 성격과 높은 인격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화는 유가에서 표방하는 덕성을 갖춘 인물, 국화는 은자와 연결되어 맑고 그윽한 정취나 현세에 아부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표상하고 있으며, 연꽃은 속세의 티끌에 물들지 않는 허심하고 강직한 인품을 상징하는 꽃으로 인식되었다.

목은의 이 세 가지 꽃을 읊은 시들을 살펴보면 특징적인 면모가 나타난다. 목은의 詠花詩에는 꽃의 형상에 대한 묘사보다는 목은 자신의 삶의 그림자가 더 강하게 투영되는 경향이 짙는데 가령 詠花詩에 자주 등장하는 자신의 병든 모습도 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은의 작품 속에서 매화는 은일 취향의 맑고 그윽한 정취를 자아내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 높은 덕성을 지닌 어진 사람에 비유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당시 매화를 감상하는 일이나, 매화를 주고받으며 매화시를 지어 화답하는 일은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동일한 지향을 가진 지인들과 어울리고, 고상한 지조를 기르는 중요한 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은의 국화시에서 국화는 주요하게 도연명의 형상과 겹치는, 은자의 상징으로 비유되면서 전원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관직에 묶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전원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과 귀거래에 대한 회구와의 갈등은 결국 굳이 옛 사람들의 자취를 따라가지 않아도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고인들이 지향했던 이상적인 인격수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의해 해소되며, 이를 통해 국화의 이미지는 한적하고 고상한 취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국한되게 된다.

목은의 시에서 연꽃은 깨끗하고 곧으며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는 형상으로 부각되어 있다. 매화나 국화를 감상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연꽃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시를 화답하며 놀이의 형식으로 즐

겼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연꽃 감상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꽃놀이를 하면서 뜻이 맞는 고급의 인물들을 연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임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목은의 영화시 대부분이 꽃의 상징성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목은이 단순히 꽃을 감상한 시인이 아니라 성리학적 인생관을 가진 선비로서 자연에 임했기 때문일 것이다. 목은의 영화시 중 꽃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는 대부분 유가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목은의 유가적 가치관과 연관이 있다. 목은 이전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화시를 창작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목은처럼 뚜렷한 성리학적 이념을 가지고 다수의 영화시를 창작해 유가에서 인정하는 이상적인 인격에 대한 추구를 읊은 시인은 드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목은이 모든 꽃을 마주할 때 다 성리학적인 유자의 자세로만 임한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약하거나 희박한 꽃에 대해 읊을 경우, 꽃의 형태를 묘사하는데 치중하거나 일상적인 삶의 정취를 읊은 경우도 있다. 이는 목은이 이런 꽃을 대할 때 옛 시인들이나 그들의 작품의 영향에서 좀 더 자유로워져 자신만의 평범한 일상을 읊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李穡, 『牧隱詩藁』, 『한국문집총간』 3·4, 1990.
- 여운필, 성범중, 최재남 공역, 『역주 목은시고』, 월인, 2005.
- 이종복 역, 『목은한시선』, 以會文化社, 1999.
- 임정기 옮김, 『(국역)목은집』, 민족문화추진회, 2001.
- 강재철, 「목은 이색의 사군자시 연구」, 『한문학논집』 제5집, 단국한문학회, 1987.
- 高蓮姬, 「정약용의 花卉에 대한 관심과 花卉詩 고찰」, 『東方學』 제7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1.
- 김연희, 「송대 영화시 연구-사군자를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金準玉, 「詠物詩의 性格 考察」, 『韓國言語文學』 제29집, 한국언어문학회, 1991.
- 류호진, 『이색 시의 예술경계와 그 정신적 의미』, 경인문화사, 2004.
- 徐盛, 「중당 영물시의 발전방향과 그 특징」, 『중국어문논총』 제21집, 중국어문연구회, 2001.
- 成範重, 『東國四詠 研究』, 月印, 2006.
- 申千滉, 『목은 이색의 학문과 학맥』, 一朝閣, 1998.
- 여운필, 「이색의 시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3.
- 이주희, 「李商隱 詠物詩에 나타난 人生感慨-詠花詩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제46집, 嶺南中國語文學會, 2005.
- 이해원, 「歷代 詠梅詩詞에 나타난 梅花의 象徵意味 研究」, 『중국학논총』 제15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03.
- 임원민, 「李商隱 詠物詩의 抒情性」, 『중국연구』 제35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5.
- 장준영, 「杜甫 영물시의 정신세계」, 『중국학연구』 제31집, 중국학연구회, 2005.
- 허경진, 「시에 나타난 국화의 의미」, 『연세어문학』 제12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9.
- 桂舟, 「中國古典詩人與梅蘭竹菊」, 『江蘇工業學院學報』 第4卷 第4期, 2003年12月.
- 金聲, 趙麗玲, 「花影妖嬈各占春-古代詠早春花卉秀句欣賞」, 『名作欣賞』 第四期.
- 馬曉東, 「從禪意詩中的花月意象看古代文人的虛靜守一」, 『遼寧師專學報(社會科學版)』, 2006年 第6期.

- 成曙霞, 「古代詠菊詩審美價值略論」, 『安康師專學報』第17卷, 2005年2月.
- 楊靜, 「唐牡丹詩與牡丹文化」, 『荷澤師專學報』, 第24卷 第3期.
- 閻來恩, 「花卉, 透視心靈的棱鏡-論李商隱的詠花詩」, 『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27卷 第4期.
- 李凌, 「清得合讓梅爲最, 陽豔叢中許牡丹-唐詠牡丹詩與宋梅詩的比較」, 『鹽城工學院學報』2004年 第三期.
- 李振中, 「談岑參詩中梨花意象意義及成因」, 『牡丹師範學院學報(哲社版)』 2006年 第4期.
- 張紋華, 林偉, 「論李清照詞的花意象-從唐宋文人審美、女性情感審視李清照詞的花意象」, 『語文學刊』2006年 第12期.
- 趙紅, 張仁漢, 「儒、道、禪思想與唐桃花詩的審美情趣」, 『浙江學刊』2006年 第4期.
- 陳清雲, 「略論白居易詠花詩」, 『晉中學院學報』第23卷 第4期.
- 陳小芒, 蓼文華, 「菊詩與菊文化」, 『贛南師範學院學報』2003年 第5期.

The study on *Mokeum Lee Saek's* poems about flowers
- the case study of ume poems, chrysanthemums poems and lotus
poems

Jin HongMei

Lee Saek(1328~1396), who wrote the most poems among the poets in *Goryeo* dynasty, left 70 poems about flowers. He lived through *Goryeo* and *Josen* Dynasty.

In *Lee Saek's* poems, not only purely describe the flowers poise, but also mainly emphas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riter's life. From admiring the flowers to the composing the poems about flowers, brings a sense of elegance to *Lee Saek's* works. His chrysanthemum poems focus on *Tao YuanMing's* immersion with chrysanthemums' image. The chrysanthemums are used as a symbol representing Tao. The chrysanthemums struggle between reality and ideal, which represented the pursuing of the ideal human principle.

In *Lee Saek's* poems, the lotus is pure and white, representing righteousness. In contrast to the ume and chrysanthemums poems, the composition of the lotus poems was done during chatting, dining and drinking with friends. When drinking with friends with similar interests, admiring lotus blossoms was enjoyed greatly by the writer.

Lee Saek's focus was on describing the exterior appearances of the flowers, rather than on describing the symbolic spirit of these flowers represented. Therefore, in his poems about flowers, it is extremely rare to maintain singular representation for each flower. In other words, in his poems about flowers, he leaned more towards these flowers' spiritual symbol than the flowers' beauty.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Lee Saek* included human nature's principles into the poems about flowers.

Of course, the principle of human nature was not the only thing *Lee Saek* considered when he admired flowers. Some poems were composed based on daily life, these poems, though they bore influences from foremen, can be expressed in

a freer fashion to a large extent.

keywords: poems about flowers, ume poems, chrysanthemums poems, lotus poems, human nature's principles, pure and white, ideal personality

| |
|--|
| 접수일자 : 2008. 4. 10 심사기간 : 2008. 4. 10~2008. 5. 20 계재결정 : 2008. 5. 20 |
|--|